

**EXHIBIT 2: INFRINGEMENT #1**URL: <http://atlantachosun.com/322899>


atlantachosun.com 최신뉴스 피플 건강 로컬 경제부동산 비즈니스 교육 종교 내셔널 이민 칼럼 커뮤니티

**메트로시티뱅크**  
METRO CITY BANK

Doraville, GA (770) 495-2600  
Johns Creek, GA (770) 495-1774  
Duluth, GA (770) 495-2625  
Suwanee, GA (770) 495-2625  
Sugarloaf, GA (770) 495-2625  
Opelika, AL (334) 741-1200  
Norcross, GA (770) 495-1000  
Centerville, VA (804) 345-3655  
Montgomery, AL (205) 733-1133  
Fort Lee, NJ (201) 733-1133  
Bayville, NY (516) 377-4800  
Grand Prairie, TX (972) 303-4800  
Dallas, TX (214) 390-8111  
Peachtree Corners, GA (404) 390-4000  
East Cobb, GA (770) 495-6410

문제는 주아-루벤펠드 부부 교수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'고상한' 예일대 로스쿨에서 이전부터 뒤는 행동과 주장으로, '미운 딸'이 박혔다는 것이다. 헌법학자인 남편 루벤펠드는 2019년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-성추행 사건으로 무급(無給) 징직 처분을 받아, 지금도 감리를 하지 못 한다. 그는 "성폭력에서도 피해자가 노(no)라고 말했다고, 무조건 강간이 될 수는 없다"는 지론을 편다.

학교 당국은 당시 루벤펠드 교수의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면서, 주아 교수도 학생들과 "번번하게 과도한 음주를 한 사실"을 발견했다. 주아는 그때 "가까운 장래에는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고 밖에서 어울려 술 마시지 않겠다"고 학교에 서약했다. 거센 학장은 주아가 디너파티 게이 트로 이 서약서를 위반했다고 했지만, 주아는 "지금 내게 쏟아지는 비난엔 일점의 진실도 없다 (zero truth)"고 반박한다.



6월7일자 뉴욕 매거진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에 실린, 주아 교수가 자신의 집 앞에서 찍은 사진/뉴욕 매거진

주아 교수도 메스컴의 주목을 즐기며, '파격적인' 의상과 사진 촬영도 마다하지 않는다. 미 언론인 데이비드 프림은 "주아는 미 지성계에선 불편한 존재"라며 "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접근하고 경고를 이 나면 '아, 미안, 이런 글이인가요?'라고 웃으며 묻는 스타일"이라고 평

**Tower**  
Pure Wine & Spirits

KORU GIN

온라인으로  
오디하고  
커브사이드  
패밀리나  
딜리버리  
받으세요

TowerWineSpirits.com